

碩士學位 論文

제주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지역별 비교

指導教授 趙 泳 培

東國大學校 文化藝術大學院

韓國音樂 專攻

康 文 鳳

2001年

碩士學位 論文

제주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지역별 비교

康文鳳

指導教授 趙泳培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12月 日

康文鳳의 音樂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1年 12月 日

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東國大學校 文化藝術大學院

# 目 次

第I章 緒 論 .....	1
第1節 研究의 目的 .....	1
第2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	1
第II章 濟州道 民謠의 概觀 .....	4
第III章 해녀 노 짓는 소리 概觀 .....	8
第IV章 地域別 濟州 해녀 노 짓는 소리의 音樂 分析 .....	11
1. 濟州市 (해녀 노 짓는 소리) .....	11
2. 趙川邑 新峯里 (해녀 노 짓는 소리) .....	15
3. 居枋邑 金寧里 (해녀 노 짓는 소리) .....	18
4. 星山邑 新陽里 (해녀 노 짓는 소리) .....	22
5. 南原邑  표선里 (해녀 노 짓는 소리) .....	26
6. 西歸포시 保幕洞 (해녀 노 짓는 소리) .....	30
7. 韓慶面 湧水里 (해녀 노 짓는 소리) .....	34
8. 大正邑 哈模里 (해녀 노 짓는 소리) .....	38
9. 安德面 大坪里 (해녀 노 짓는 소리) .....	42
第V章 結 論 .....	46
參 考 文 獻 .....	49
ABSTRACT .....	50

# 第I章 緒 論

## 第1節 研究의 目的

民謡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口傳해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소박한 노래를 말한다.<sup>1)</sup> 그러므로 민요는 그 '民'의 특성과 아울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게 마련이다.

제주도 민요는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이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의 각 지역은 지역적 특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섬의 한가운데 한라산이 있어서 교통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고,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민요들이 지역별로 선행 연구가 되어 있기는 하나 연구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언어나 음악적 요소를 가지고 지역별 민요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민요는 노동요가 특히 많다. 노동요 중에서도 여성요가 많다.<sup>2)</sup> 여성요 중에서도 제주도 민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해녀 노 짓는 소리'<sup>3)</sup>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불리고 있거나 사라져가고 있는 '해녀 노 짓는 소리'를 제주도 지역별로 나누어 音樂的 比較를 하고자 한다.

## 第2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제주도를 제주·조천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김녕·성산·표선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 서귀포·안덕·대정·한경을 중심으로 한 남서부지역의 3개 구역으로 나누었다.<sup>4)</sup>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半農半漁의 형태를 띤다. 동부지역은 농토가 척

1) 서한범, 『국악통론』(서울: 태림출판사, 2001), p.178.

2) 김영돈, 『제주의 민요』, 제주도, 1992, pp.22~37.

3) 흔히 '네 짓는 소리'로 불리는데, 해녀들의 가창이라는 점에서 '해녀 노래'라고도 한다. 그리고, 남성 어부들도 드물게 노를 저으며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배 짓는 소리'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배 짓는 소리'와 구분되고, '네 짓는 소리'와 '해녀 노래'를 지칭할 수 있게 통일하여 '해녀 노 짓는 소리'라 한다.

4) 1416년(태종16) 제주도 行政區域이 개편된 이후, 제주도의 행정은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의

박하였다. 그러므로 농토가 비옥했던 서남부 지역보다는 어업, 특히 해녀 작업의 비중이 컸다. 서남부 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농토가 비옥한 편이어서 농업이 성했으나,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업도 성했다. 북부지역 중 제주와 조천은 제주도의 중심지로 육지와와의 교류의 관문이었다. 때문에 육지부의 음악적 요소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민요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농업에 비중을 두든, 어업에 비중을 두든, 어업에 있어서는 해녀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그러므로 해녀들 사이에 불리는 어업요가 많다. 그 중에서도 '해녀노 젓는 소리'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요로, 세 지역에 전부 나타나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음악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제주도를 다음(그림1)과 같이 세 지역으로 나누어 '해녀노 젓는 소리'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다.

(그림 1)



민요 채집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필자는 (1)MBC 한국 민요 대전<sup>5)</sup>에서 발굴된 민요, (2)조영배 교수 소장의 제주도 민요 중에서 필요한 음향자료

음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후 제주도는 주로 세 지역을 중심으로 도민의 생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러한 특성들이 더러 보인다.

5) (주)문화방송(편), 『한국민요 대전 : 제주도 민요편』 (서울 : MBC, 1992).

연구의 자료로 삼았다.

연구 자료에서 사용한 지역별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음향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제주도 - 강순연 (여, 58세)
- ② 조천읍 신촌리 - 황이화 (여, 76세)
- ③ 구좌읍 김녕리 -선 : 김경성(여, 63세) -후 : 김녕리 주민다수
- ④ 성산읍 신양리 - 고인춘 (여, 78세)
- ⑤ 남원읍 표선리 - 김정아 (여, 68세)
- ⑥ 서귀포시 보목동 -선 : 김순향(여, 83세) -후 : 한진생(여, 86세)
- ⑦ 한경면 용수리 -선 : 이화규(여, 71세) -후 : 고순옥(여, 69세)
- ⑧ 대정읍 하모리 -선 : 이의철(여, 79세) -후 : 하모리 주민다수
- ⑨ 안덕면 대평리 -선 : 정태숙(여, 80세) -후 : 임정숙(여, 78세)

본고는 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음악적인 요소를 추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음악적 요소 중에서도 리듬, 음계, 선율, 형식의 네 가지 요소를 추출하여 지역별로 비교하였다.

본 자료에 쓰인 악보는 성악곡의 오선보 표기법에 기준하였으나 오선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표들을 사용하였다.

- ① (  ) 음이 불확실한 부분의 리듬을 표시
- ② (  ) 떠는 음의 표시
- ③ (  $\uparrow \downarrow$  ) 반음정 이하로 음이 높거나 낮을 때의 표시
- ④ (  ) 음을 끌어 올림
- ⑤ (  ) 음을 끌어 내림

## 第II章 濟州道 民謠의 概觀<sup>6)</sup>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다른 文化와의 접촉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주도 문화는 독특한 성격을 띠고 발전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 때문에 제주도 민요 또한 독특한 성격을 띤다.

제주도 민요는 독특한 성격은 한반도의 다른 지역 민요보다 문화적으로나 음악적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도 민요가 형성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리적 환경, 방언과 같은 인문사회적 요인과 역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살펴보자. 우선 제주도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섬이라는 점에서 고립성이 강하다. 즉, 한반도나 일본, 중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문화적 교류가 어려웠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은 제주도 사람들이 어느 한가지 일을 생업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주로 半農半漁의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특수한 형태의 생업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농부도 되고, 동시에 어부도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냥꾼이나, (농사 수단으로서의) 목동 등이 되었다. 제주민의 생활이 이처럼 다양한 것은 민요에도 영향을 주어 다양한 민요를 탄생케 했다.

언어만 하더라도 그렇다. 민요의 사설이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제주의 언어가 한반도와 다르다는 것은 민요 또한 한반도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말해 준다. 언어뿐만 아니라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 풍습도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 매우 다르다. 제주도에는 三多三無, 수눌음, 신구간 등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기구했다. 탐라국으로 출발하여 고려의 속국으로, 조선의 한 지방으로 바뀌면서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왜구와 몽고의 착취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주도의 역사는 제주민의

6) 이 후의 내용은 아래의 문헌을 요약 정리한 것임.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 연구』(제주 : 도서출판 예술, 1992), pp.20~22.

자기 방어 의식과 배타적 성격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환경은 제주민의 생활과 의식 구조는 물론 민요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도 민요는 다양하다. 그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sup>7)</sup>

구 분		종류 및 표준어 명칭	제주 현지 고유 명칭	
음 악	노	농	사대/김매는 소리 -긴사대/김매는 소리 -자진사대/김매는 소리 -아외기 소리 타작질 소리 밭 밟는 소리 밭가는 소리	사대 소리/김질매는 소리 -긴 사대 소리 -쫓른 사대 소리 -아외기 소리 마당질 소리/도리깨질 소리 밭 툄리는 소리 밭 가는 소리
		업	따비질 소리 보리이삭 훑는 소리 흙덩이 바수는 소리 상사 소리	따비질 소리 보리 훑트는 소리 곰베질 소리 상사 소리
외 적 기 능 요	동	요	더럼 소리 소 모는 소리 씨레질 소리 밀레질소리	더럼 소리 쇠 모는 소리 씨레질 소리 밀레질 소리
		요	해녀 노 짓는 소리 멀치 후리는 소리 메배 짓는 소리 갈치 낚는 소리 자리 잡는 소리 배 내리는 소리 선유가	해녀질 소리/잠수질 소리 멜후림 소리 테위 짓는 소리 갈치잡는 흥생이 소리 자리잡는 소리 배 내리는 소리 선유가
토 속 민 요	요	어 업 요		

7) 조영배, 상계서, pp.25~26.

구 분		종류 및 표준어 명칭	제주 현지 고유명칭	
음악 외적 기능 요 토속 민요	노 동 요	제 분 요	방아질 소리 맷돌질 소리 연자방질 소리	남방에 지는 소리 ㄱ래 ㄱ는 소리 몰방에 ㄱ는 소리
		임 업 요	꿀 베는 소리 도끼질 소리 툽질 소리 나무내리는 소리	출비는 소리/홍애기 소리 도치질 소리/낭꾼치는 소리 툽질 소리/낭싸는 소리 낭 꺾어 내리는 소리
		관 망 요	망건 짜는 소리 탕건 짜는 소리 양태 짜는 소리 갓모자 짜는 소리	멩건 짜는 소리 탕근 짜는 소리 양태 짜는 소리 갓모자 짜는 소리
		잡 역 요	방앗돌 굴리는 소리 집줄 놓는 소리 풀무질 소리 -디딤/발판풀무질 소리 -토폰무질 소리 -뚝뚝풀무질 소리 짚 두드리는 소리 흙질 소리 땅다지는 소리 흙 이기는 소리	방앗돌 꺾어 올리는 소리 줄 노는 소리 불미질 소리 -디딤/발판불미질 소리 -토폰미질 소리 -뚝뚝불미질 소리 쩍/쩍 또리는 소리 흙질 물꾼 소리 집터 다지는 소리 질 또리는 소리
	의 식 요	달구질 소리 진토파는 소리 서우제 소리 꽃 염불 소리	달귀질 소리 진토폰 파는 소리/솔기소리 /권력소리 서우제 소리 꽃 염불 소리	

구 분	종류 및 표준어 명칭	제주 현지 고유명칭
자장가	자장가	애기구덕 흥그는 소리
음악내적 기능요 (통속민요)	오돌도기, 이야옹타령, 너영나영, 봉지가, 산천 초목, 용천검, 길군악, 사랑가, 중타령, 동풍가 등	현지명과 표준어명을 동일 하 게 사용
동 요	각종 동요	각종 동요

### 第III章 濟州 해녀 노 짓는 소리 概觀<sup>8)</sup>

제주도에서 어업과 관련하여 가창되는 민요로는 ‘해녀 노 짓는 소리’, ‘멜(멸치) 후리는 소리’, ‘태우<sup>9)</sup> 짓는 소리’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해녀 노 짓는 소리’는 제주도 각 지역에 두루 나타나고 있다. 해녀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한국과 일본에만 있을 뿐인데, 해녀 대부분이 제주도에 몰려있고, 이 ‘해녀 노 짓는 소리’가 전승되는 곳은 제주도뿐이다.<sup>10)</sup>

이 ‘해녀 노 짓는 소리’는 해녀들이 물질작업을 나갈 때, 또는 출가할 때 배를 저으면서 부르는 민요이다. 해녀들이 바다로 나갈 때 대부분은 노 짓는 일을 자신들이 하지만, 때에 따라 船主인 남자 어부들이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민요는 해녀들이 주로 부르지만, 남자도 함께 부르는 민요이다. 어떤 경우에는 남자인 어부가 선소리를 하고, 여자인 해녀들이 뒷소리를 받거나 모방하는 형태로 가창하기도 한다.<sup>11)</sup>

해녀들의 물질은 참으로 힘든 작업이다. 집안 살림은 물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바다로 나간다. 바다로 나가는 해녀들은 노 짓는 일까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은 여성들로서는 매우 힘든 노동이다. 해녀들 중에서도 상군이라 칭하는 최고의 해녀들이 주로 이 일을 맡았다. 그런데 노는 대개 혼자서 짓는대기보다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짓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해녀들은 배 위에 모여 앉아 장단을 맞추면서 뒷소리를 부른다. 노를 짓는 동작은 매우 규칙적이면서 강약의 대비가 분명하다. 해녀들은 테왁,<sup>12)</sup> 망사리<sup>13)</sup>, 빗창<sup>14)</sup> 등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는데, 물질하러 나가는 배에서 테왁이나 빗창 따위를 장단 치는데

8) 이 章은 아래의 문헌 내용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혀둔다.

\* 김영돈, 『濟州의 民謠』, 제주도, 1992, pp.46~47.

\* 조영배, 진계서, p.89.

9) 뗏목과 비슷한 제주 특유의 배로 ‘테워, 터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10) 김영돈, 진계서, p.46.

11) 조영배, 『우리고장 전래민요』 (제주 : 도서출판 예술, 1996), p.21.

12) 해녀들이 작업을 할 때 물에 띄우는 도구로 잠수했다가 수면 위로 올라와 팔로 두르고 쉬기도 하며, 여기에 망사리를 매달아 놓는다.

13) 채취한 해산물을 담은 작은 그물로 된 도구.

14) 바다 밑에서 전복 따위를 캐는 데 쓰는 도구.

사용하기도 한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어서, 도내 어디를 가더라도 바다와 분리할 수 없는 제주민의 삶이 있다. 다른 한편 본토로 출가할 때에는 흔히 돛배(제주에서는 이를 흔히 風船이라 불렀다.)를 이용했는데, 바람이 알맞지 않을 때에는 승선한 해녀들이 노를 저어야 했고, 노를 저으면서 바로 이 ‘해녀 노 짓는 소리’를 부르며 그 고달픈 마음을 달랬다고 한다.<sup>15)</sup> 이런 면에 비추어 볼 때,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에서는 해변가를 중심으로 널리 이 노래가 퍼져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해녀라는 말은 잠녀(潛女), 잠수(潛嫂) 등으로 불렀다. 따라서 이 민요를 잠녀 소리, 또는 잠수 소리라고도 한다. 그런데 제주도 해녀들은 제주도 연안에서만 해녀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한본토로 나가서 몇 달씩 살며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까지 가서 해녀 작업을 하기도 했다.<sup>17)</sup>

‘해녀 노 짓는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녀 작업의 과정과 해녀들의 삶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제주 연안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하러 나가면서 대개 배를 이용했는데, 이 때에 노를 저으며 이 민요를 불렀다. 해녀들의 물질 작업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다. 해녀들은 바닷물에 들어가서 태왁을 안고 전복, 소라 등의 채취 작업을 했다. 한차례 깊이 바다 속으로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한 후 불위로 나와서는 숨비소리라 하는 특이한 소리(한껏 숨을 참았다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내는 이 소리는 휘파람 소리와 비슷하다.)를 내고 나서는, 해산물을 망사리에 넣고 나서 태왁을 잡고 휴식을 취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그리고 고된 물질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역시 이 ‘해녀 노 짓는 소리’를 불렀다. 그러므로

이 민요에 나타나는 사설의 대부분은 해녀 작업과 관련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내용 또한 작업의 고됨을 달래기 위한 것이 많다.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의 민속음악』 (경기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103.

16) 제주도, 『濟州의 民謠』 (제주, 1992), pp.649~654.의 자료편 색인만 보더라도 이 민요가 제주도 전역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7) 김영돈, 전계서, pp.154~176.을 보면 일본의 대마도, 고지, 녹아도, 동경, 장기, 정강, 천엽, 애원, 도근, 덕도, 중국 요동반도에 있는 대련, 산둥성에 있는 청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출가했다.

이 ‘해녀 노 짓는 소리’의 또 다른 사실 내용을 들자면 해녀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되는 내용들이다. 척박한 자연 환경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제주민들의 삶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며느리로서의 心的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했다. 이러한 고통을 ‘해녀 노 짓는 소리’를 부르면서 노 짓는 동작에 얹어 해녀 자신들의 恨을 달래고 있는 것이다. 이 민요의 辭說 내용은 제주도 어느 지역의 것일지라도 대부분 비슷하다. 사실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민요가 제주도 해녀들 사이에 널리 불렸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하나의 共感帶를 형성하는 것인데, 오늘날까지도 이 민요의 사실은 많은 해녀들이 기억하고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민요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前述한 共感帶가 컸기 때문일 것이다.

## 第IV章 濟州 해녀 노 짓는 소리의 地域別 分析

### 1. 제주시 (해녀 노 짓는 소리)

(악보 1)

♩ = 90 C = G

강순연(여, 58세), 조영배 채집, 강문봉 채보

미역도사나 마 - 마 미역도사나 멧

묘 - 밧갸고 모 - 모 어 밧 가 리 데 에 에

전 도 바 당 에 에 폰 - 토 갸 다 멧

미역도사나 마 마 미역도사나 으 사 으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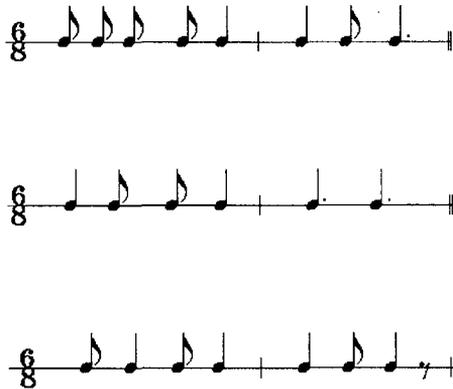
저 다 저 다 멧 etc.

(1) 리듬

이 민요의 박자는 규칙적인 6/8박자이며 3분할 중심의 곡인데 단장리듬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복잡한 리듬꼴은 거의 없다. 이 민요의 속도는  $\text{♩} = 90$  으로 빠르게 가창되지 않으며, 첫박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잇’이 불확정 음고로 힘차게 표현되기도 하며, 가락없이 ‘으싸 으싸’는 노 젓는데 힘을 내자고 외치는 경우도 있다.

이 민요에 나타나는 리듬꼴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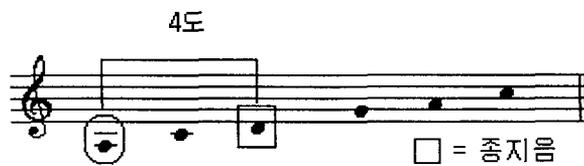
(악보 2)



(2) 음계

① 구성음의 배열구조

(악보 3)



②음계

(악보 4)

4도                      4도

G : 레 미 솔 라 도 레

(3) 선 울

이 민요는 선율선은 역프라이다크 삼각형이 하행곡선을 이루며, 음역은 비교적 넓다. 대체로 단10도를 이루며 종지꼴이 일반적으로 4도 상행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프레이즈의 후반부는 사실상 같은 가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낮은 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 높은 소리로 강하게 가창하다가 후반부로 가서는 차분하게 낮은 음을 가창 하면서 다소 여유를 가진다.

이 민요의 선율선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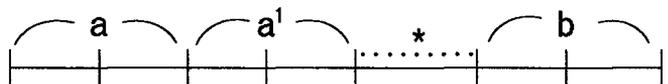
○ = 종지음

(4) 형 식

이 민요는 본래 일 대 다의 모방창으로 가창되나 본고의 음향자료에서는 독창으로 가창되고 있으며, 반드시 두 마디를 짝으로 가창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민요의 전개방식으로 볼 때 동일악구의 반복형태의 틀을 가지고 있다.

이 민요의 구조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6)



\* 부분이 얼마나 확장되느냐에 따라 프레이즈 길이가 달라짐

2. 조천읍 신촌리 (해녀 노 젓는 소리)

(악보 7)

♩ = 110 C = D

황이화(여, 76세), 조영배 채집, 강문봉 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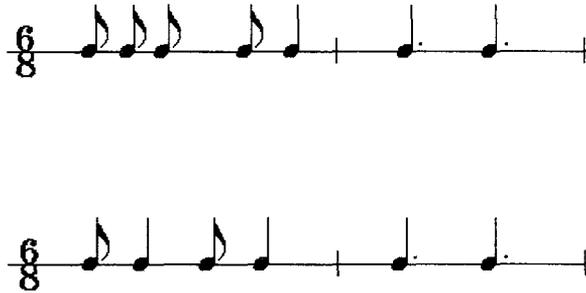
미 어 도 사 나 마 마 미 어 도 사 나 마 마  
 무 리 새 는 마 마 괘 도 갠 다 어 어  
 미 어 도 사 나 미 어 도 사 나 마  
 미 어 미 어 땀 땀 미 어 라 디 땀  
 소 다 새 복 땀 땀 조 은 줄 고 etc.

(1) 리듬

이 민요는 6/8박자이며, 리듬은 3분할 중심의 곡인데, 단장리듬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복잡한 리듬꼴은 거의 없다. 속도도 ♩ = 110 내외로 비교적 빠르게 가창되며, 첫박자에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곡의 중간 부분에 '잇'의 불확정 음고로 힘차게 표현하고 있으며, 가락없이 '디어라 디어'의 노 젓는데 힘을 내라는 말을 여러 사람이 외치는 경우도 있다.

이 민요에 나타나는 리듬꼴은 다음과 같다.

(악보 8)



(2) 음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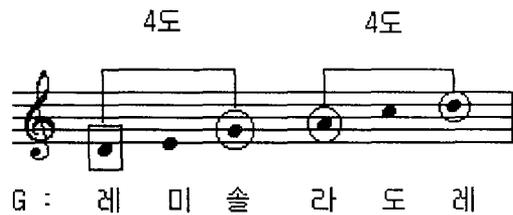
① 구성음의 배열구조

(악보 9)



② 음계

(악보 10)



(3) 선 울

이 민요의 선율선은 하행곡선을 이루며 후반부에 가서 가장 낮은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 높은 소리로 강하게 가창하다가 후반부로 가서 차분하게 낮은음을 가창 하면서 다소 여유를 가진 다음 다시 처음의 높은 소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 민요의 음역은 완전8도를 이루고 있으며 종지꼴이 2도 상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민요의 선율선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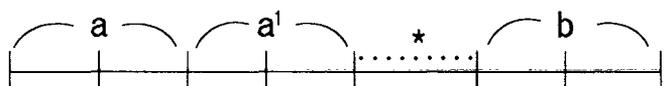
○ = 종지음

(4) 형 식

이 민요의 가창방식이나 전개방식은 앞의 민요와 동일하다.

이 민요의 구조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12)



\*부분이 얼마나 확장되느냐에 따라 프레이즈 길이가 달라짐

3. 구좌읍 김녕리 (해녀 노 짓는 소리)

(악보 13)

♩ = 100 C = F 선 : 김경성(여,63세) 후 : 주민다수, MBC 한국민요대전

미 여 사 나 아 - 아 미 여 도 사 나 - 으 - - 아  
 미 여 사 나 - 미 여 도 사 나  
 미 여 도 사 나 묘 밭 겨 서 여 여  
 미 여 도 사 나 묘 밭 따  
 여 들 가 리 - - - 갠 도 바 님 - -  
 다 - 서 미 여 도 사 갠 도 바 다  
 뽕 꿀 도 가 세  
 미 여 도 사 나 etc.

(1) 리듬

이 민요의 박자는 6/8박자이며, 리듬은 3분할 중심의 곡인데 대부분 단장리듬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지만, 장단리듬도 한두 번 사용이 되며 복잡한 리듬꼴은 거의 없다. 속도도 ♩ = 100 내외로 비교적 빠르게 가창되며 첫박에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 민요에 나타나는 리듬꼴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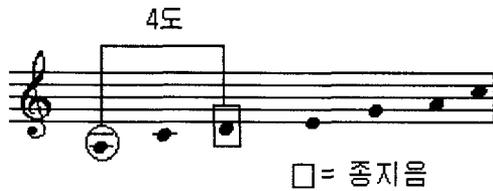
(악보 14)



(2) 음계

① 구성음의 배열구조

(악보 14)



②음계

(악보 16)

A musical staff in G major showing a scale: G (circled), A, B (circled), C, D (circled), E. Brackets above the staff indicate intervals of 4 degrees between G and B, and between C and E. The notes G, B, and E are circled. Below the staff, the notes are labeled: G : 레 미 솔 라 도 레.

(3) 선 율

이 민요는 6마디에서 8마디 정도의 선율이 한 개의 프레이즈를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처음 높은 음에서 출발하여 다음에 이어지는 선율은 낮은 형태의 하행곡선을 이룬다. 특히 프레이즈의 후반부에는 가장 낮은 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 민요의 음역은 단10도를 이루며, 종지꼴이 4도 상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민요의 선율선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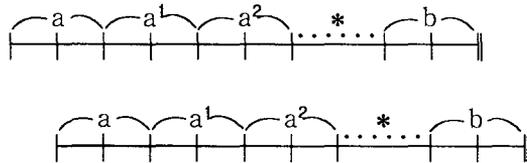
A musical staff showing a scale with a final cadence. The notes are G, A, B, C, D, E, F, G. The final G is circled. Below the staff, a legend indicates: = 종지음

4) 형 식

이 민요의 가창방식이나 전개방식은 앞의 민요와 동일하다.

이 민요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악보 18)



\*부분이 얼마나 확장되느냐에 따라 프레이즈 길이가 달라짐

4. 성산읍 신양리 (해녀 노 짓는 소리)

(악보 19)

♩ = 100 C = D

고여훈(여, 78세), 조영배 채집, 강문봉 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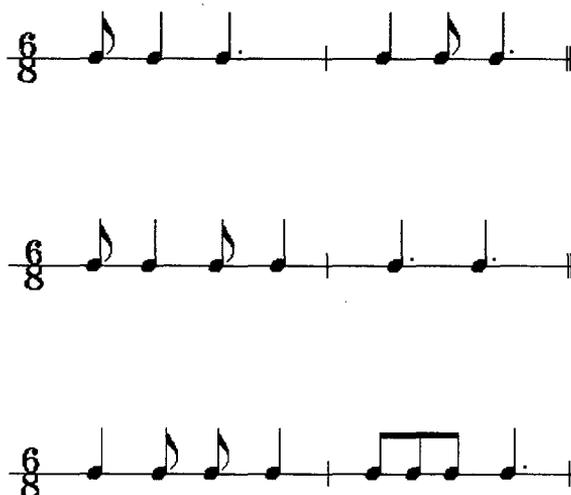
이 여 도 사 마 여 여 이 여 사 여 여 여  
 이 여 사 마 묘 뵈 겹 고 모 모  
 어 뵈 가 요 여 여 짚 따 담 예 예 예  
 짚 굴 도 가 - 자 마 이 여 사 마 마  
 스 브 나 무 스 - - 물 삼 나 문 예 예 예  
 묘 뵈 삼 귀 뵈 뵈 소 나 마미 여  
 뵈 뵈 감 함 이 여 서 나 가 자 처 다  
 처 다 처 다 이 여 사 마 미 다 고 다 처 다 하 는  
 이 여 사 마 etc.

(1) 리듬

이 민요는 6/8박자이며, 리듬은 3분할 중심의 곡인데 대부분 단장리듬이 특징으로 나타나지만, 장단리듬도 가끔 사용된다. 속도는  $\downarrow = 100$  내외로 보통빠르기로 가창되고 있으며, 첫박에 강하게 표출되며 가락없이 '쳐라'등의 노 젓는데 힘을 내라는 말을 외치는 경우도 있다.

이 민요의 리듬꼴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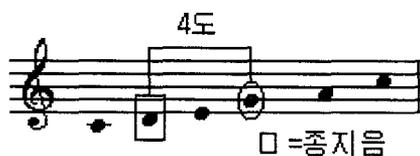
(악보 20)



(2) 음계

① 구성음의 배열구조

(악보 21)



②음계

(악보 22)

4도

G : 레 미 솔 라 도 레

(3) 선 율

이 민요는 6마디에서 8마디 정도의 한 개의 프레이즈를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선율선도 하행곡선을 이루며, 이 민요의 음역은 완전8도를 이루고 종지꼴이 2도 상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민요의 선율선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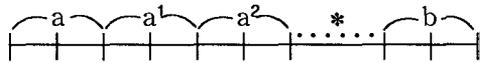
○ = 종지음

(4) 형 식

이 민요의 가창방식이나 전개방식은 동일하다.

이 민요의 구조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24)



\*부분이 얼마나 확장되느냐에 따라 프레이즈 길이가 달라짐

5. 남원읍 표선리 (해녀 노 짓는 소리)

(악보 25)

♩ = 100 C = F 김정아(여, 68세), 조영배 채집, 강문봉 채보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18 staves of music in a single system. The notation is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F major/D minor) and a 3/4 time signature. The tempo is marked as ♩ = 100 and the common time signature is C = F.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and are aligned with the notes. The lyrics are as follows:

미 어 도 사 나 마 - 마 미 어 도 사 마 마 - 마  
 비 도 간 다 마 - 마 바 다 도 간 다 - 마  
 남 도 간 다 어 기 여 마 - 마 재 기 여 다  
 명 - - 미 어 모 다 마 - 마 미 어 도 사 나  
 상 도 따 다 마 - 마 배 걸 러 기  
 뎀 - - 삼 주 나 사 구 마 - 마 노 짓 는 어  
 미 어 도 사 나 마 - 마 미 어 도 사 나  
 처 다 처 다 삼 목 을 지 역  
 어 - 어 갈 디 나 가 게 에 - 에 저 바 남 에  
 에 - 에 생 목 고 둑 짚 었 건 만  
 손 이 나 따 바 마 - 마 못 할 도 구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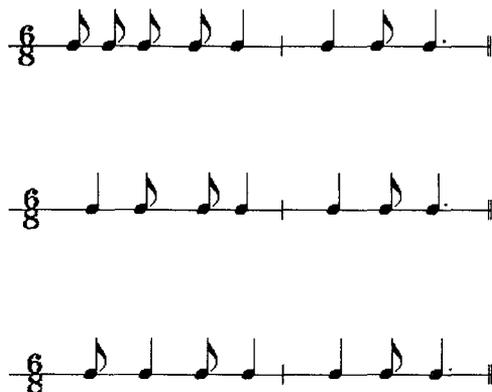
마 - 마 마 여 도 사나  
 니 눈 만 이 이 - 이 유 년 못 감 마 - 마  
 가 시 나 무 어 - 어 원 도 나 못 감  
 머 주 나 환 도 어 어 갱 그 나 들 자  
 취 다 취 다 판 북 들 자 다 갱 디 나 취 취 어디 여다 etc.

(1) 리듬

이 민요는 규칙적인 6/8박자이며, 리듬은 3분할 중심의 곡인데 단장의 리듬보다 장단리듬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속도는  $\text{♩} = 100$  내외로 보통빠르기로 가장 되며, 첫박을 강하게 표출되어 있으며, 가락없이 '쳐라 쳐라', '흔목을 쥐자', '갈디나 가자' 등의 노 젓는데 힘을 내라는 말을 외치는 경우도 있다.

이 민요에 나타나는 리듬꼴은 다음과 같다.

(악보 26)



(2) 음 계

①구성음의 배열구조

(악보 27)



②음계

(악보 28)



(3) 선 율

이 민요의 선율선은 하행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처음에 높은 소리로 강하게 가창하다 후반부에 가서 차분하게 여유를 가진다. 이 민요의 음역은 완전8도이며, 종지꼴이 2도 상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민요의 선율선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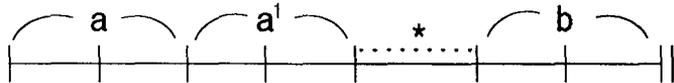


(4) 형 식

이 민요의 가창방식이나 전개방식은 앞의 민요와 동일하다.

이 민요의 구조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30)



\*부분이 얼마나 확장되느냐에 따라 프레이즈 길이가 달라짐

6. 서귀포시 보목동 (해녀 노 젓는 소리)

(악보 31)

♩ = 88 선 : 김순향(여, 83세), 후 : 한진생(여, 86세), MBC 한국민요대전

C = D

미어도 사나 - 마 - 마 - - 미어도 사나 마 - 마 - -  
 미 어 도 사 나 마 - 마 - 미 어 도 사 나 -  
 무 리 새 에 어 - 맑은 물 이 어 스 - 니  
 마 - 무 리 새 에 어 - 맑은 물 맑  
 배 뒤 처 고 - 어 - 맑은 물 이 마 - 마  
 스 - 배 뒤 처 고 마 - 맑은 물 맑  
 건 어 처 고 어 물 마 래 가  
 다 명 건 어 처 고 어 어 etc.

(1) 리듬

이 민요는 6/8박자이며, 리듬은 3분할 중심의 곡인데 단장리듬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복잡한 리듬은 거의 없다. 속도는  $\downarrow = 88$  내외의 빠르게 가창되지 않으며, 노를 젓을 때, 즉흥적으로 발산되는 힘이 첫박에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어'의 불확정 음고로 힘차게 표현하고 있다.

이 민요의 리듬꼴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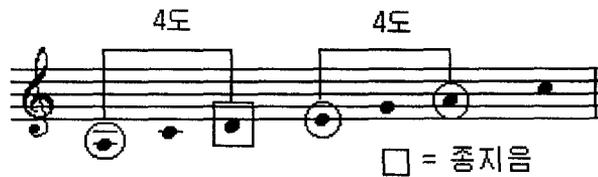
(악보 32)



(2) 음계

①구성음의 배열구조

(악보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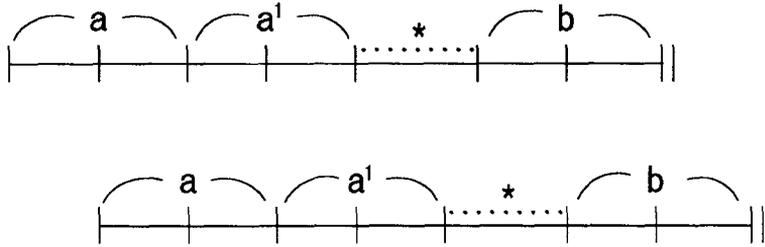


(4) 형 식

이 민요의 가창방식이나 전개방식은 앞의 민요와 동일하다.

이 민요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악보 36)



\*부분이 얼마나 확장되느냐에 따라 프레이즈 길이가 달라짐

7. 한경면 용수리 (해녀 노 젓는 소리)

(악보 37)

♩ = 100 C = A

선 : 이화규(여, 71세), 후 : 고순옥(여, 69세),

조영배 채집, 강문봉 채보

미 여 도 사 나    마 - 마    미 여 도 사 나    마 - - 마

미 여 도 사 나    마 - 마    미 여 도 사 나

미 여 도 사 나    부 령 겹 겹 에    에 에 에 에

미 여 도 사 나    부 령 겹 겹 에

가 신 님 은    은 은    돈 들 없 령

에 에    가 신 님 은    은    돈 들 없 어

모 건 마 는    꿈 등 상 권    의 의 - -

모 건 마 는    꿈 등 상 권

가 신 남 은 으 - - 은 면 계 되 면  
 어 면 가 신 남 은 은 면 계 한 면  
 돌 마 모 나  
 돌 마 모 나 etc.

(1) 리듬

이 민요는 규칙적인 6/8박자이며, 리듬은 3분할 중심의 곡인데 단장리듬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복잡한 리듬은 거의 없다. 속도는 ♩ = 100내외이며, 보통빠르기로 가창되고 있으며, 노를 젓을 때 즉흥적으로 발산되는 첫박에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 민요의 리듬꼴은 다음과 같다.

(악보 38)

(2) 음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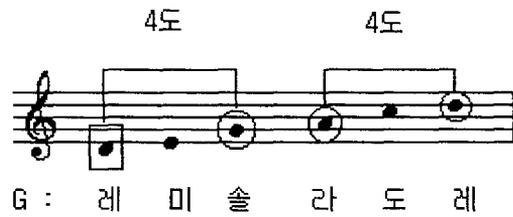
① 구성음의 배열구조

(악보 39)



② 음계

(악보 40)



3) 선 울

이 민요의 선율선은 하행곡선을 이룬다. 처음에 높은 소리로 강하게 가창되며, 음역은 9도를 이루고 있다. 종지꼴은 2도 하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민요의 선율선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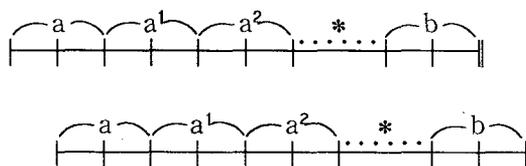


(3) 형 식

이 민요의 가창방식은 일 대 다의 모방창으로 가창되고 있으며 반드시 두마디를 짝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얼마 만큼의 길이를 한 개의 프레이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선소리 하는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처음에 시작한 가락으로 되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다.

이 민요의 구조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42)



\*부분이 얼마나 확장되느냐에 따라 프레이즈 길이가 달라짐

8. 대정읍 하모리 (해녀 노 젓는 소리)

(악보 43)

♩ = 92 C = E

선 : 이의철(여, 79세), 후 : 하모리 주민다수

조영배 채집, 강문봉 채보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ystems, each with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line.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vocal line.

System 1:  
 미역 사 나 마 - 어 - 미역도사나 마하에미에

System 2:  
 미역 사 나 어 마 해 여 여  
 미역도사나 마 마 미역도사나

System 3:  
 미역도사나 어 묘물 마래 에 - 에  
 어 미역도사나 어 미역도사나

System 4:  
 구재기경복 마 - 마 - 째 여 건 만 마 마

노 주 남 기 은 은 의 열 배 더 어 다  
 마 마 미 여 도 사 마 미 여 도 사 나  
 미 여 도 사 나 어  
 미 여 도 사 나 미 여 도 사 마 etc.

(1) 리듬

이 민요는 6/8박자로 되어 있으며, 리듬은 3분할 중심의 곡인데 대부분 단장 리듬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속도는 ♩ = 92 내외로 빠르게 가창되지 않으며, 첫박에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 민요에 나타나는 리듬꼴은 다음과 같다.

(악보 44)

(2) 음 계

①구성음의 배열구조

(악보 45)



②음계

(악보 46)



(3) 선 율

이 민요는 10마디에서 12마디 정도의 선율이 한 개의 프레이즈를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선율선도 하행곡선을 이룬다. 처음에 높은 소리로 강하게 가창하다 후반부로 가서 차분하게 낮은 음을 가창하며 다소 여유를 가진 다음 처음의 높은 소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 민요의 음역은 단10이며, 종지꼴은 2도 하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민요의 선율선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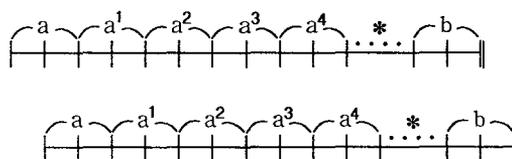
○ = 종지음

(4) 형 식

이 민요의 가창방식이나 전개방식은 앞의 민요와 동일하다.

이 민요의 구조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48)



\*부분이 얼마나 확장되느냐에 따라 프레이즈 길이가 달라짐

9. 안덕면 대평리 (해녀 노 젓는 소리)

(악보 49)

♩ = 100 C = D

선 : 정태숙(여, 80세), 후 : 임정숙(여, 78세),

조영배 채집, 강문봉 채보

미 여 사      마      마 - -      미 여 도 사 나      마      마

미 여 사      마      마 - -      미 여 도 사 나

미 여 도 사 마      마      간 다      간 다      마      마

미 여 사      마      마 - -      미 여 도 사 마

나 는      간 다      마      너      들      두      고      모      모

간 다      간 다      마      마      나 는      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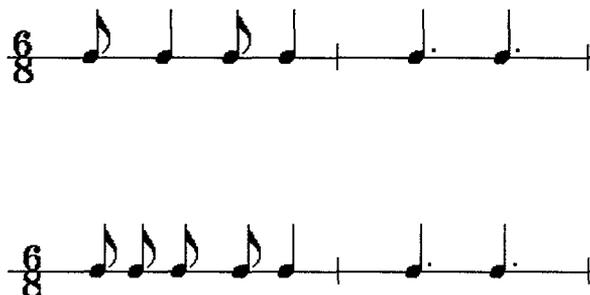
나 는      간 다      마      마      내      가      가      면      어      어

어      너      들      두      고      모      내 -      가      가      나



이 민요에 나타나는 리듬꼴은 다음과 같다.

(악보 50)



(2) 음 계

①구성음의 배열구조

(악보 51)



②음계

(악보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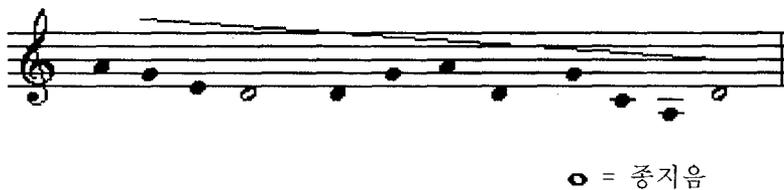


### (3) 선 울

이 민요의 선율선은 하행곡선을 이루며, 후반부에 가서 가장 낮은 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 높은 소리로 강하게 가창하다가 후반부에 가서 차분하게 낮은 음을 가창 하면서 다소 여유를 가진 다음 다시 처음의 높은 소리로 돌아가고 있다. 음역은 완전8도를 이루고 있다. 종지꼴은 4도 상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민요의 선율선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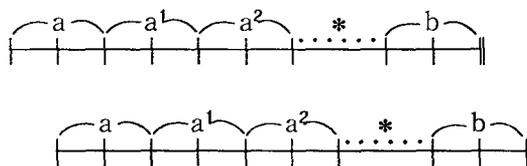


### (4) 형 식

이 민요의 가창방식이나 전개방식은 동일하다.

이 민요의 구조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54)



\*부분이 얼마나 확장되느냐에 따라 프레이즈 길이가 달라짐

## 第V章 結 論

### 1. 리듬

이 민요들은 일반적으로 M.M. ♩=88, 에서 M.M. ♩=110정도의 속도로 가창되고 있다. 따라서 느린 속도로 연주되는 민요는 거의 없다.

이 민요는 3분할 중심의 단장리듬 형태가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민요 역시 '일반적으로 강박에 긴 음가의 리듬을 처리하여 안정감을 추구하는 서양음악과는 달리 한국민속악은 강박 상에 도리어 짧은 음가의 리듬이 자주 나타남으로써 생동감과 역동성을 추구하고 있는'<sup>18)</sup> 민요라 할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다음 악보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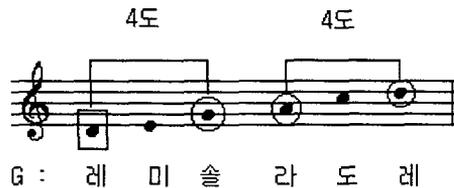
(악보 55)



### 2. 음계

이 민요들은 (악보 56)과 같이 4도핵 구조의 Re선법('레, 미, 솔, 라, 도'의 5음음계)이 나타나고 있다.

(악보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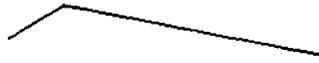
18) 조영배, "제주도 민요의 양식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p.241.

### 3. 선 율

이 민요들의 선율형태가 하행되고 있으며, 하행형 선율 운곽은 중간정도의 음을 낸 후(평으로 내는 소리) 하행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가장 높은 소리로 질러서 내며(들어서 내는 소리) 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민요에서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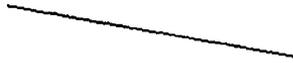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역프라이다크 삼각형)

(그림 3)



(하행형)

소리를 들어올리는 경우에는 다시 중간음을 발판으로 하여 최고 음으로 치고 올라간 후 하행한다. 말하자면 평으로 소리를 낸 후 다시 최고 음으로 들어올리고는 하행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소리를 들어올려서 최고 음부터 시작하여 하행하는 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민요에서 지역별로 볼 때 동부지역에 속하는 제주시 민요가 위 (그림 2)와 같이 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동부민요와 서남부민요에서는 위 (그림 3)과 같이 들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4. 형 식

이 민요는 일 대 다의 모방창으로 가창되고 있으며, 동일악구 반복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민요들은 가창형태가 집단적이며, 대체로 일정한 주기로 반복된다. 따라서 구조 역시 [  $a + a^1 \dots * \dots$   $b + b^1 \dots * \dots$  ](\*부분의 길이는 유동적)형태가 대부분으로 단순하고 고정적인 악구가 반복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구조로 비교적 단순하고 고정적인 악구가 반복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해녀 노 짓는 소리를 지역별로 비교 해본 결과 리듬, 선율선, 음계, 형식 등의 약간씩은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이것으로 보아 해녀 노 짓는 소리는 제주도의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 제주도의 동일한 형태로 가창되고 있는 상당히 고정성의 강한 민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현장 가창자를 통해서 직접 채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주 민요를 연구해 나가고자 한다.

## 參 考 文 獻

- 서한범, 『국악이론』. 서울 : 태림출판사, 2001.
- 김진균. "민요의 실체", 『음악과 전통』. 서울 : 태림출판사, 1984.
-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제주 : 도서출판 조약돌, 198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민속음악』. 경기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제주시(편). 『제주의 향토민요』. 제주 : 도서출판 예술, 2000.
- 제주도(편). 『제주의 민요』. 제주 : 제주도, 1992.
- 조영배. 『우리고장 전래민요』. 제주 : 도서출판 예술, 1996.
-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 연구』. 제주 : 도서출판 예술, 1992.
-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의 음조직과 선율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조영배. "제주도 민요의 양식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 홍덕기. "제주도 민요의 분석연구 : 구좌읍 노동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오승식. "제주도 민요의 분석연구 : 안덕면 노동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강경수. "제주도 민요의 분석연구 : 제주시 노동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Rowing Songs of Hayneo" Through the Whole Cheju

Kang, Moon Bong

Major in Korean Music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Fine Arts

Dongguk University

Minyo, Korean Folk Songs are traditional songs which are handed down orally from the general public. So it's certain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s well as the people.

Cheju Minyo shows regional qualities well. For Cheju is an island far from the mainland. And every different districts in Cheju also have its own characteristics. That's because they have different geographical conditions and moreover Mt. Halla block traffic. There were studies on Minyo in each district but the comparative studies with the results have not been explored. Therefore the comparative study of regional differences in Minyo based upon language and musical elements should be requested.

There are many working songs in Cheju Minyo. Especially women songs among them. 'Rowing Song' is a representative sample. This thesis aims to compare the different types of the song currently available in different districts using musical elements- rhythm, scale, melody, form.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rhythm

The tempo of these songs is generally from M.M. ♩=88, to M.M. ♩=110. So there are few songs played with a slow tempo.

These songs have three divided rhythm patterns. The important feature of these patterns is scotch rhythms(short-long rhythm patterns). So Cheju 'Rowing Songs', which are dynamic and energetic with a short rhythm of down beat, are different from Western songs, which try to keep stable with a long rhythm of down beat.

The example is the following music 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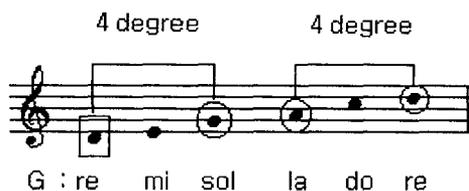
(music sheet 55)



### 2. scale

We can see Re modes(music sheet 56 : re, mi, sol, la, do ) in Rowing Songs.

(music sheet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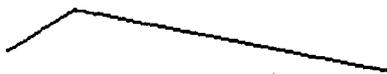


### 3. melody

The melodic contours of Cheju 'Rowing Songs' are pathogenic. So the melodies go down after an intermediate tone or in a high-pitched voice from the beginning. One is going down after making a high-pitched voice from an intermediate tone and the other is going down in a high-pitched voice from the very begi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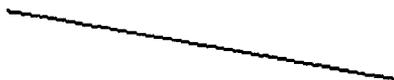
For example :

(picture 2)



(downward pattern after intermediate tone-climax)

(picture 3)



(downward pattern after high pitched voice)

Generally downward pattern after intermediate tone-climax ( picture 2) is shown in Chejusi in northern area and downward pattern after high pitched voice (picture 3) in east and southeastern area.

### 4. form

The folk songs are sung by response style and have iterative form.

They sing in a group and certain phrases are repeated with a same interval. Therefore the form [  $a + a^1 \dots * \dots$   $b + b^1 \dots * \dots$  ] is developed

with repetition of relatively simple and fixing phrases.

As a result of a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each districts but they are almost same songs. So 'Rowing song" of Cheju Hanyeo h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each districts and is a song of very fixed type.